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견조한 미 실업률... 주간 실업 수당 청구건수 약간 하락
- CNN Business: 미 경기 침체에 백인 근로자 타격이 가장 심한 이유는?
- NYT: 미 소비자들, 계속 지출...소매업체 할인 탕
- WSJ: 공급망 개선으로 연말 쇼핑객 '풍요로운 시즌' 맞을 듯
- Bloomberg: 새로운 연방의회에서 연준, 인플레이와 일자리 긴장 커진다
- WSJ: 연준 Waller 이사, '인플레이 정점이라는 첫부른 결론'에 경고

[미국 금융]

- Bloomberg: 미국인들, 손실과 인플레이로 인해 주식 투자 줄인다

[글로벌 경제]

- CNBC: 세계 인구 80억 시대...인도 인구가 중국 앞지른다
- CNN Business: 중국 소비자들 지출 줄인다...알리바바 매출 타격
- The Economist: 내년엔 눈여겨 볼 추세 10가지는?

[부동산]

- NYT: 미 사무실 빌딩들, 아직도 텅 비었다...건물 가치 폭락할 수도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NBC "美 공화당이 하원 장악, 221석 차지 예상 다수당 확보"
- 연합: 골드만삭스, 연준 최종금리 전망치 5.0~5.25%로 상향
- 연합: 웰스파고 "美기업 해고와 실적 압박 시작에 불과"
- 연합: 유럽은 오히려 재택근무 확대 중..."사무실 에너지절약 위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Enel,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짓는다
- The Economist: ESG, 끈기 있게 투자할 가치 있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Jobless Claims Fall Slightly in Tight Labor Market

견조한 미 실업률... 주간 실업 수당 청구건수 약간 하락

- 한마디로 구인 수요가 구직을 원하는 사람보다 계속 많다는 얘기다. 지난 주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약간 떨어져 여전히 견조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수당 청구건수가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연방 노동부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의 경우 4천건 줄어 22만2천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평균 21만8천건과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 IT 기업들의 해고 숫자는 아직 이 청구건수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들 업종의 해고자는 재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졌다는 것.

- 계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전체 청구건수는 지난 11월 5일에 끝나는 주의 경우 13만건 줄어든 1백50만 건이다. 전체 청구건수는 주간 신규 청구건수보다 1주일 늦게 발표된다.

WSJ 기사

CNN Business: A recession could hit white-collar workers the hardest.**Here's why****미 경기 침체에 백인 근로자 타격이 가장 심한 이유는?**

- 팬데믹 이후에 미 기업들이 놀라운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곧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경우 백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Milken Institute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William Lee의 분석이다.
- 그는 특히 IT 분야 기업들의 이같은 해고 조치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의 보다 효과적인 IT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어 팬데믹 기간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보니 수요 폭증의 기간을 잘못 판단했기에 최근 구조조정으로 많은 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이나 엔지니어 등의 해고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NYT: U.S. Shoppers Are Still Spending, as Long as Retailers Give Them a Reason**미 소비자들, 계속 지출...소매업체 할인 탕**

- 연방 상무부의 이번 주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매판매는 1.3% 증가했다. 이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연말 할인 시즌을 이용하는 소비심리를 잘 반영한다.
- 공급망 혼란과 높은 수요로 할인이 드물었던 팬데믹 기간과 달리, 수요는 여전히 있지만 소비자들이 아무렇게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마존 등 소매업체들이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
- 미 전국 소매협회는 11~12월 연휴 매출이 6~8% 증가해 물가상승률을 밀돌 것으로 예상했다.
- 따라서 소매업체들은 이번 연말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행동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WSJ: Fading Supply-Chain Problems Signal Season of Plenty for Holiday Shoppers**공급망 개선으로 연말 쇼핑객 '풍요로운 시즌' 맞을 듯**

- 물류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면서 미국인들은 3년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작년과 정반대로 스토어에 재고가 많다는 말이다.
- 경영진과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1. 공급망 수용 능력 증가, 소비가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전환과 고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 그리고 더 빠른 배송 리드 타임과 풍족한 재고를 강조하는 수요 공급 관리의 '뉴 노멀'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가지 예로 월마트는 지난 2년반동안 재고 준비에 애를 썼다.

WSJ 기사

Bloomberg: Fed to Face Rising Tensions in Next Congress on Inflation and Jobs

새로운 연방의회에서 연준, 인플레이와 일자리 긴장 커진다

- 연준의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의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 연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정책에 대한 의회와의 갈등이 커질 것이다.
- 즉. 민주당은 현재 일자리 손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다 공화당은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책임질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Patrick McHenry은 연준이 인플레이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요구했다. 다행히 상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고금리가 일자리를 해치고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Fed Official Warns Against Prematurely Concluding Inflation Has Peaked

연준 Waller 이사, '인플레이 정점이라는 섣부른 결론'에 경고

-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 통제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와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인플레이가 약화되는 신호와 고용 조건이 약간 둔화되는 데이터를 통해 연준이 오는 12월 13일부터 양일간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0.5%로 낮추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그는 한가지 보고서에 속지 않을 것이며, 종합적인 상황과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Americans Are Investing Less in the Stock Market as Inflation Crimps Budgets

미국인들, 손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 투자 줄인다

-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주식 투자 보다는 오히려 일상 필수품 구매 등에 더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웰스파고가 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 미국인 4명중에 한 명 꼴로는 주식에 덜 투자하고 차라리 그로서리, 가솔린, 주택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돈을 더 사용하고 있다.
- 더욱이 그들은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2%는 현금 인출을 원하고, 세금 과태료만 없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IRA나 401(k) 계좌를 소진하고 싶어한다는 것.
-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즉, 크레딧 카드를 더 상용하고 저축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들로 인해 주식에서 수 조 달러가 날아가고 은퇴 자금이 피해를 받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World population reaches 8 billion people, with India expected to surpass China as most populous nation

세계 인구 80억 시대...인도 인구가 중국 앞지른다

- UN의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이번주 화요일 80억 명에 달했고, 중국의 인구가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도는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950년 이래로 세계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위생, 깨끗한 식수에의 접근, 영양이 개선되고 백신과 항생제가 개발됨에 따라 사망률이 줄고 기대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세계 인구는 1950년 이래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UN은 세계 인구가 2080년대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대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CNBC 기사

CNN Business: Chinese consumers are wary. Alibaba's sales miss forecasts

중국 소비자들 지출 줄인다...알리바바 매출 타격

- 알리바바는 이번주 목요일 전년 대비 3% 증가한 3분기 매출을 발표하며 분석가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팬데믹 봉쇄,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며 알리바바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지난 11/11 기간에도 중국 소비자들은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았다.
- 한편 알리바바는 중국 시장에서 Pinduoduo, TikTok, ByteDance 등의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에 놓이며 타격을 받았다.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역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4%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역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2022년 약 30% 급락했다.

CNN Business 기사

The Economist: Ten trends to watch in the coming year 내년에 눈여겨 볼 추세 10가지는?

“The World Ahead 2023”의 편집자인 Tom Standage의 서한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금리, 경제 성장, 식품 부족 현상 모두 향후 우크라이나 양상에 달렸다. 러시아는 에너지 부족과 미국의 정치 변동 때문에 서구의 우크라이나 지지가 약화될 것으로 바라며 갈등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움트는 경기 침체

미국의 침체는 완만하지만 유럽은 심각할 수 있다. 이 고통은 글로벌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식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은 빈곤 국가들이 강달러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이제는 정점?

곧 중국 인구는 인도에 추월당하고 경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같은 낮은 경제 성장은 미국을 따라 추월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분열된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못했지만 낙태, 총기 소지, 다른 각종 중요 이슈에 대한 미국의 분열은 일련의 논쟁을 일으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더 벌어질 것이다.

주목할 갈등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타 지역에서의 갈등을 부추인다. 중국은 대만 개입이 보다 더 좋은 시점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인도-중국 갈등, 터키가 에게해의 그리스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동맹 관계

지정학전 변동 속에 우방국들이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토는 새로운 회원국 2개를 받아들인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새로운 블록인 아브라함 협약(Abraham accord)에 가입할 건가? 미국이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2개 클럽인 Quad, aukus의 중요성,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미국을 연결하는 공동 포럼인 i2u2가 눈에 띈다.

보복성 여행 현상

코비드로 참았던 여행객들의 소비 지출이 지난 2019년과 같은 1조 4천억달러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물가가 몰랐기 때문이다. 일제 국제 여행객 숫자는 1조6천 만명으로 지난 2019년 1조8천만명보다 적다. 비즈니스 여행도 기업들의 절감으로 여전히 약하다.

메타버스 리얼리티 체크

가상세계에서 일하고 노는 아이디어가 비디오 게임을 능가할까? 애플은 내년에 처음으로 헤드셋을 출시한다. 그리고 패스워드 대신에 보다 간편한 passkey가 등장할지 모른다.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더욱 '뉴 노멀'이 될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부동산]

NYT: Why Office Buildings Are Still in Trouble

미 사무실 빌딩들, 아직도 텅 비었다...건물 가치 폭락할 수도

- 팬데믹이 끝나고 기업들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함에 따라 대규모 사무실 건물을 소유한 회사들은 지난 2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인원 감축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업계 상황은 더 악화됐다.
- 부동산 회사 Jones Lang LaSalle에 따르면 시카고, 휴스턴,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19.1%, 뉴욕 시내는 2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무실 건물의 가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39%, 즉 4천5백40억 달러가 폭락할 수 있다.
- 또 기업들은 점차 경제 불황에 대비해 사무실 공간을 줄여 임대료를 절약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를 고수하는 기업도 많아 주요 대도시 사무실의 사용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NYT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환경: NBC "美 공화당이 하원 장악, 221석 차지 예상 다수당 확보"
- 연합: 골드만삭스, 연준 최종금리 전망치 5.0~5.25%로 상향
- 연합: 웰스파고 "美기업 해고와 실적 압박 시작에 불과"
- 연합: 유럽은 오히려 재택근무 확대 중..."사무실 에너지절약 위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Enel to Build Massive Solar Panel Factory in U.S. Enel,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짓는다

- 이탈리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Enel이 미국에서 대규모 태양 전지 제조 공장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태양 전지판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Enel의 계획은 미국이 재생에너지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른 것이다. 이 공장은 1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벤처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높이도록 추진함에 따라 미국과 전세계의 태양열 발전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공급망의 약 80%를 중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 조치가 진행되며 산업 전반의 공급량이 부족해진 상태이다.

WSJ 기사

The Economist: The tenacity of ESG investing ESG, 끈기 있게 투자할 가치 있다

- 지난 2021년 시작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대한 green-finance(그린 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붐은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및 유가가 상승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세계가 화석 연료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큰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 또 규제 당국의 '그린 워싱' 단속 등이 겹치며 ESG 분야의 순수입액은 작년보다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그린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 수익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이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이며, 그들의 투자가 필연적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느긋한 태도는 환경 투자로 벌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

The Economist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속도조절만 OK' 장기전 예고하는 연준

**10월 CPI 등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도
월러 이사 "한 번의 데이터에 속지 않을 것"
윌리엄스 연은 총재 "금융 불안보다 물가가 중요"
데일리 연은 총재 "인상 중단 논의조차 안해"**

조지 연은 총재 "연착륙은 기대에 불과" 침체 예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를 보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좋은 출발'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한 번의 지표에 속지(head-faked)는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 관계자들이 그 이상의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10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서 비록 물가 상승 추세가 상당 수준 완화된 것은 금리 인상의 속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것이다. 연준 관계자들은 오히려 '더 높게, 더 오래'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